

“

### 10.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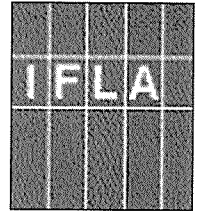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

### 11.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Section

(학교도서관·정보센터 분과)

### 12. Bibliography Section(서지 분과)

”



지난 3월호까지 한 호에 3개 분과씩 총 9개 분과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10.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11. 학교도서관·정보센터 분과(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Section), 12. 서지분과(Bibliography Section)에 대해 알아보겠다.

#### 10.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는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서를 권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는 관련기관들 사이의 국제 협력 증진을 통해 서로간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훈련 및 각종 리서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 분과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과 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지침(Guideline for Library Service for Young Adults) 등을 비롯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유관 기관(특히 어린이·청소년 교육 문제를 다루는 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모든 어린이·청소년이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분과에서는 전 세계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ICDL)와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하고 있다. ICDL은 10,000여권의 어린이용 서적이 100여개 언어로 제공되는 인터넷 도서관 중 하나로 인터넷 문서 및 어린이용 인터페이스 디자인 분야의 전문 기관인 메릴랜드 대학교 부설 'Human-Computer Interaction Lab'에서 관리,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은 제2의 학교로서 그 교육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도서관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린이들의 지적, 정서적 욕구 충족에 있어 부모의 소득수준이나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

는다는 데 의의가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어린이도서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우선은 그 숫자가 턱없이 적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만 살펴본다 해도 현재 어린이전용도서관은 시립과 구립을 합쳐 네 곳에 불과하며 학부모나 시민단체, 종교계에서 자체적으로 운용 중인 소규모 어린이 도서관을 합해도 100여개를 넘지 않는다(공공도서관 어린이열람실 제외). 인구 1만 명당 1개꼴로 어린이도서관, 또는 어린이이용시설을 갖춘 도서관이 있는 유럽의 경우와 비교하면 아직도 열악한 현실이다.

도서관의 숫자나 규모 외에 낮은 이용률도 큰 문제이다. 이는 어린이문화의 핵심적인 공간으로서 활용되어야 할 어린이도서관이 가지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기존의 공공도서관이 그러하듯 자료 대출이나 독서실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적으로 권장할 만한 책이 없다는 것과 잦은 도서 망실에 대한 대책 미비, 공간 활용의 부적절함 역시 어린이도서관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들을 진정 '꿈나무'로 여기고 있다면, 미리부터 그 나무들을 위한 적절한 자양분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양분 중 하나는 도서관과 그 안에 담긴 지식, 정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참고자료

- Libraries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Section : <http://ifla.org/VII/s10/index.htm>
- Guideline for Children's Library Service : <http://ifla.org/VII/s10/pubs/ChildrensGuidelines.pdf>
- Guideline for Library Service for Young Adults : [http://ifla.org/VII/s10/pubs/guidelines\\_e.pdf](http://ifla.org/VII/s10/pubs/guidelines_e.pdf)
- International Children's Digital Library(ICDL) : <http://www.icdlbooks.org/>
- University of Maryland Human: Computer Interaction Lab : <http://www.cs.umd.edu/hcil/>
-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 <http://www.lib.washington.edu/subject/Childrens/>
- Web resources to serve latino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libraries and schools(라틴계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학교용 웹 자원 : 콜로라도 주립도서관) : [http://www.cde.state.co.us/cdelib/download/pdf/latino\\_Web\\_Res.pdf](http://www.cde.state.co.us/cdelib/download/pdf/latino_Web_Res.pdf)
- Young Adult Librarian's Help / Homepage : <http://yahelp.suffolk.lib.ny.us/>
- Youth Services in Small and Rural Libraries : <http://eagle.clarion.edu/~grads/csrl/bib18.html>
- 느티나무 어린이도서관 : <http://www.neutinamu.org/sys/>
- 어린이 도서가 세계로 가기 위해선(이유선 어린이도서관연구회 도서관문화위원장, 월간 출판저널 2005년 5월호)
- '어린이 도서관 길잡이'(어린이도서관연구소 저, 2004)

## 11. 학교도서관 · 정보센터 분과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Section)

학교도서관 · 정보센터 분과는 전 세계의 학교도서관과 정보센터들의 발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들의 능력 개발과 충분한 재정 확보로 학교도서관의 질적 향상 및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와 협력하여 학교도서관 선언문(IFLA/ 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과, 학교도서관 지침(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을 발간하였다. 이 분과에서는 상호간의 경험과 연구실적, 의견을 자유로이 교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학교도서관 및 정보센터 분과에서 목표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 교육, 독서, 정보 활용 및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학교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역할 강화
- 학교사서의 역할 정립 및 우수사례 강조
- 학교사서의 전문 능력 개발 지원 및 학교사서를 위한 전문 교육프로그램 강화
- 교육에 있어서의 도서관과 정보 활용 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고취
- 학교사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보급 및 정체성 확립
- 학교도서관협회 설립 또는 각국 도서관협회 내에 학교도서관분과 설립 장려 및 지원

미국, 유럽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는 이미 학교도서관을 다각도로 활용하면서 그 가치를 증명하였다. 아시아 각국에서도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학교도서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학교도서관을 학생들만을 위한 학생도서관에서 만인을 위한 학습자원정보센터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학교도서관 재편에 착수한 지 오래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때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에는 낡은 책과 먼지만이 가득했었다. 어찌면 공포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던 거미줄투성이의 음습한 도서실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과거를 보여주는 단편적 실례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소외되어 있던 학교도서관들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교육열을 따라 변하고 있다. 새로이 단장을 하고 특성화에 성공함으로써 제 역할을 멋지게 수행해 내는 학교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교도서관들이 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전문직이 없는 학교도서관이야 말할 것도 없고 전문직으로서 사서교사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뿐 아니라 같은 동료로서가 아니라 그저 도서관지기로서 사서교사를 바라보는 일부 현장 교사들의 시선이나, “책은 보기 좋게 크기대로 꽂는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진 ‘높으신 분’들의 무관심 역시 학교도서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학교도서관은 더 이상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학교의 비품보관소, 도서창고가 아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소수를 위해 학교도서관의 문 앞에 보다 적나라한 핏말을 걸어놓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좋은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결코 과거를 뛰어넘을 수 없다.’

참고자료

- School Libraries and Resource Centers Section : <http://ifla.org/VII/s11/index.htm>
- IFLA/UNESCO School Library Manifesto, 1999 : <http://ifla.org/VII/s11/pubs/schoolmanif.htm>
- The IFLA/UNESCO School Library Guidelines 2002 : <http://ifla.org/VII/s11/pubs/school-guidelines.htm>
- School Library Journal : <http://www.schoollibraryjournal.com/>
- IAC-R : INSTRUCTIONAL MEDIA CENTERS/SCHOOL LIBRARIES : <http://www.columbia.k12.mo.us/policies/iac-r.pdf>
- Online Resources for School Librarians : <http://www.school-libraries.org/resources/curriculum.html>
- LIBRARY OR MEDIA CENTER(School Planning & Management, APRIL 2004) : <http://www.peterli.com/archive/spm/655.shtm>
- National Organization of Circumcision Information Resource Centers : <http://www.nocirc.org/>
- Guidelines for Library Media Programs in Louisiana Schools : <http://www.doe.state.la.us/ide/uploads/4211.pdf>
- 『Designing a School Library Media Center for the Future』 (Erikson, Rolf; Markuson, Carolyn, 미국도서관협회, 2001)
- 학교도서관 교육 중심 시설로 육성해야(학교도서관대회 특집기사, 서귀포신문 446호) : [http://www.seogwipo.co.kr/old/journal/board\\_doc.php?R\\_ID=9674&MODE=1](http://www.seogwipo.co.kr/old/journal/board_doc.php?R_ID=9674&MODE=1)

## 12. 서지분과 (Bibliography Section)

서지분과는 기본적으로 서지정보에 대한 내용, 배열, 제작, 보급 및 보존 등과 관련된 분과이다. 특히 국제서지 서비스에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서지분과에서는 이상에 언급된 서지정보의 제작, 내용, 배열, 보급, 보존 등을 통해 UBC(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국제서지통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 서지기구들과 협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모든 형태의 도서관에 종사하는 전문직들은 물론 출판업계 종사자, 도·소매업자, 이용자에 이르기까지 서지학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지분과는 서지통정 부회(Division of Bibliographic Control)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타 부회 및 분과와 도 서지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서지분과의 주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가서지의 제작 장려 및 지원을 통한 국제서지통정 보급 확대
- ICNBS(International Conference on National Bibliographic Standards)의 결정사항 지원 및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통한 서지통정의 질적 강화
- 서지정보의 준비 및 제공을 위한 출판업계와의 협력 증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지분과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느 분야에서도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국제서지, 즉, 완벽한 국제서지의 작성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수많은 협의와 조정 절차를 거쳐 왔지만 언어의 다양성과 국가 간 표기법의 차이의 극복이 쉽지 않아 완벽한 국제서지를 작성하기까지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 Bibliography Section : <http://ifla.org/VII/s12/index.htm>
- Korean Bibliography(미국 의회도서관 한국 서지 규정) : <http://lcweb2.loc.gov/misc/korhtml/korbibhome.html>
- RLA(러시아도서관협회) : Section on bibliography : <http://www.rba.ru/eng/or/comitet/24/>
- Classification of Subject Bibliography : <http://www.lib.byu.edu/~catalog/catalogwebsite/departmentmanual/section4.3.htm>
- 1994 Bibliography on School Restructuring : <http://www.ncrel.org/sdrs/areas/issues/educatrs/leadshp/leon-int.htm>
- 한국의 서지학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 서지학회 발간의 [書誌學研究]에 한정하여 : (이란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권, 1호, 323-344쪽)

#### 마치며

얼마 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옆자리 승객끼리 '도서관은 무엇으로 먹고 사는가? 왜 필요한가?' 를 요지로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다. 도서관이라기보다 독서실로서의 기능이 더 돋보이는 우리 도서관들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많으며, 그저 자리만 지키고 있는 사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세금을 낸다는 사실에 비분강개해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도서관이 경제적 실리를 추구한다면 과연 이를 순수한 의미의 도서관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잊고 살듯이, 도서관의 가치 또한 쉽게 잊은 채 그저 눈앞의 소소한 사건들에 의해 아주 쉽게 그 가치를 폄하하곤 한다. 도서관은 자료의 소통이라는 '돈 안 되는 일' 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이용자에게 가장 쉽고 적절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창출한다. 지금과 같이 정보가 곧 성공을 의미하는 시대에서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을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도서관을 낮추어 보는 이용자들을 생각하며 한숨을 쉰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깨닫고 변하기만을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좀 더 똑바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글 : 2006 서울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처]